

# 企業環境變化에 따른 經營 對應

## 차 례

- I. 머리말
- II. 油價의 變化
- III. 輸入自由化의 擴大
- IV. 技術의 급격한 變化
- V. 新保護貿易主義의 擴大
- VI. 國際金融市場의 不安
- VII.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倫理의 提高
- VIII. 맺음말



李 德 魯

(延世大學校 商經大 經營學科講師)

## I. 머리말

企業環境(Business Environment)이란 企業의 내부 및 외부에 있어서 企業이나 企業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諸領域을 말한다. 종래의 경우 기업은 주로 내부분제에 치중하여 기업의 내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企業을 보다 有效하게 그리고 能率的으로 經營할 수 있는가 하는 經營技法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企業環境을 固定不變한 것으로 보거나 實事 變化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豫測可能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企業環境은 매우 流動的이고 變化의 速度가 빠르며 그 程度가 高度化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多樣하여 社會·文化的, 政治·法律的, 經濟的, 技術的, 自然的 生活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環境要素는 직접·간접으로 企業目的을 達成하는데 機會가 되거나 制約이 되기 때문에, 企業을 이끌어가는 經營者는 기업의 목적을 달

성하는 過程에서 自己企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環境要素가 어떤 것인가를 正確히 把握하고 그 요소의 本質과 重要性을 評價하여 適切한 對應策을 摸索함으로써 環境의 變化에 잘 適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企業環境要素로 油價의 變化, 輸入自由化의 擴大, 技術의 急激한 變化, 新保護貿易主義의 擴大, 國際金融市場의 不安 등을 들어 이들 각각에 대해 經營者가 취해야 할 자세, 즉 對應戰略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오늘날 漸增하고 있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해 논술하는 순으로 展開하고자 한다.

## II. 油價의 變化

世界經濟는 2次大戰 以後 20여년간 高成長 추세를 보여왔다. <表-1>에서처럼 1973년까지 年平均成長率이 5%, 輸出伸張率이 7%였으며, 특히 70年代에 들어와서는 成長速度가 더욱 빨라져 63~73年中 年平均成長率은 6% 輸出伸

張率은 무려 8.5%를 기록하였다. 당시 세계 경제는 自由貿易의 확대, 國際金融秩序의 安定, 油價의 安定 등으로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高成長을 記錄하여 黃金期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1973年 10月 油價가 배럴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急騰한 이른바 제 1차 石油波動으로 말미암아 世界經濟는 순식간에 不況을 맞게 되었고, 뒤이어 1979年末 배럴당 15달러에서 32달러로 大幅 引上된 제 2차 石油波動으로 長期의인 沈滯의 늪을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破局에 몰아넣었던 2차 油價引上은 몇몇 環境의 變化로 말미암아 다시 引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1〉 세계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추이

(단위 : %)

	수출신장률	경제성장률
1948~1973	7	5
(1963~1973)	(8.5)	(6)
1973~1980	4	3

첫째, 石油輸出國機構(OPEC)는 1970年代만 하더라도 生産 및 價格카르텔로 막강한 힘을 과시할 수 있었으나 世界到處에서의 新油田開發과 非OPEC 産油國들의 増産 등으로 〈表-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1년을 頂點으로 世界原油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弱화되었다.

둘째, 결정적인 원인은 世界原油市場에서의 需給不均衡 때문이었다. 즉 제 2차 석유파동이 몰고온 세계적 不況으로 공장들의 稼動率이 떨어지게 되어 石油消費가 激減한데다 原油消費國들의 代替에너지 開發과 原油消費節約運動 등으로 자유세계의 原油消費量은 1979년의 50.6 百萬배럴 / 日을 頂點으로 점차 減少한 반면 이란,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OPEC 會員國들이 戰費調達, 財政赤字補填 등을 위해 需給을 超過하여 生産을 계속함으로써 原油供

〈표-2〉 世界の 石油生産

(單位 : 千배럴 / 日)

	1979	1980	1981	1982	82年構成比 (%)
O P E C	30,782	27,126	23,262	19,202	47.4
사 우 디	9,526	9,955	9,846	6,527	16.1
이 란	3,057	1,547	1,309	1,968	4.9
쿠 웨 이 트	2,512	1,658	1,137	843	2.1
이 라 크	3,431	2,708	902	964	2.4
나이지리아	2,304	2,066	1,429	1,285	3.2
리 비 아	2,064	1,793	1,090	1,094	2.7
非OPEC自由世界	19,790	20,804	20,348	21,328	52.6
美 國	10,208	10,283	9,592	9,639	23.8
멕시코	1,618	2,136	2,564	2,972	7.3
英 國	1,598	1,651	1,795	2,058	5.1
自由世界合計	50,572	47,930	43,610	40,530	100.0

〈資料〉 Retroleum Pres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Jan. 1983.

給量이 需要量을 계속 超過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1983年 3月 14日 영국 런던에서 開催된 第67次 石油輸出國機構 石油相會議는 基準時價(사우디아라비아의 公示油價)를 배럴당 從前의 34달러에서 29달러로 5달러를 引下하였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全面的인 油價引下戰爭은 일단 모면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世界原油市場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급격한 油價引下措置의 斷行으로 産油國의 經常收支를 惡化시켜 國際金融市場의 不安을 深化시키고 동시에 原油消費國의 代替에너지 開發意欲을 低下시키는 등 所謂 逆오일쇼크를 招來할 可能性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이라크 戰爭이 擴大되어 하루 8백만 배럴의 石油가 輸出되는 호르무즈해협이 封鎖됨으로써 야기될 油價暴騰의 可能性이다. 石油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境遇 원유수입의 80

% 이상을 中東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油價의 騰落은 여전히 重要한 企業 環境要因이 되고 있다.

#### 油價變化에 따른 對應策

첫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工場들을 同一한 地域에 建設하여 에너지를 效率的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실제로 대부분의 工場들은 相異한 온도의 熱을 利用하기 때문에 最高熱이 必要한 工場에서 使用한 熱을 다음 工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인화함으로써 에너지의 效率性을 極大化할 수 있다.

둘째, 1983年의 原油價下落으로 우리 나라의 海外建設業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海外建設輸出의 약 95%가 中東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日本의 39%, 프랑스의 28%에 비하면 한 곳에 너무 偏重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建設輸出을 위한 市場의 多邊化가 절실히 要請된다.

셋째, 現在 全世界의 石油埋藏量은 30年 程度의 使用量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石油가 枯渴되는 것은 必然的인 사실이다. 앞으로 新製品을 만들 때 되도록이면 石油 代身 有煙炭으로 代替하는 方案도 아울러 檢討해 봐야 한다.

네째, 에너지 利用器機 生産業체들은 에너지 效率의 改選을 위한 投資를 활발히 推進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製造業체는 제품의 質보다는 오히려 外型에 더 신경을 써 온 편이다. 그러한 傾向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外型에서는 많은 改善이 있었으나, 그것에 비례하여 에너지 消費가 增加해 왔다.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製品, 即 자동차, 보일러, 난로, 동력용모터, 家電製品 등을 生産하는 企業들의 노력이 크게 增大되어야 한다.

끝으로, 有備無患의 姿勢로 企業自体的 으로 몇달 분의 石油를 備蓄해 두는 것이 또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를 石油波動에 對處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Ⅲ. 輸入自由化의 擴大

요즈음 우리나라 經濟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지고 있는 輸入自由化는 우리 經濟가 國際收支의 經常計定에 黑字를 기록했던 1977年 下半年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1978年 하반기부터 一部 시작되다가 1982年 12월 韓國開發研究院(KDI)이 '産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이라는 報告書를 펴내면서 본격화되었다. KDI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率이 비슷한 經濟發展段階에 있는 臺灣(1973年에 이미 96%)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輸入規制에 의한 保護政策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는 企業은 國際競爭과 차단되어 傲慢한 經營자세만을 갖게 되고, 따라서 技術開發이나 生産性向上 등의 노력을 소홀히하게 되어 결국은 國內消費者들만이 國民所得의 13.1%에 해당하는 過重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1986年에 輸入自由化率을 91.6%로, 1988年에는 先進水準인 95%까지 끌어올릴 계획(表-3 참조)이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머지않아 全面的인 輸入自由化가 불가피해질 展望이 다.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企業環境의 變化는 바로 外國人 直接投資制限의 大幅 緩和이다. 第五共和國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外國人 投資許用業種은 韓國産業標準分類上 855個 業種 中에서 427個 業種으로 50%에 그쳤으나 1982年 10월 8일자 財務部 告示 제 918호(外國人投資指針)에 의해 521個 業種으로 상당히 完 化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대合作을 원칙으로하던 外國人直接投資에서 外國人 投資比率을 100%까지 가능하게 한 업종이 무려 65개를 이루

〈表-3〉 主要産業別 自由化 計劃

	總品目數	現 行 自 動 承 認 品 目 數	年度別 自由化 計劃 品目數				
			1985	1986	1987	1988	豫示留保
競争力保有産業	1,089	870 (79.9)	33 (93.1)	33 (96.1)	19 (97.9)	-	23
基礎素材産業	2,984	2,791 (93.5)	31 (95.4)	77 (98.0)	41 (99.4)	-	18
機械・電子産業	1,909	1,233 (64.6)	134 (80.8)	150 (88.7)	102 (94.0)	112 (99.9)	2
其 他	1,933	1,461 (75.6)	39 (79.5)	49 (82.0)	12 (82.6)	-	336
合 計	7,915	6,355 (80.3)	237 (87.7)	309 (91.6)	174 (93.8)	112 (95.2)	379

註：( )内는 自由化率(%)임.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外製商品이 大量으로 國內市場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外製選好傾向으로 國內産業이 크게 萎縮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輸入自由化에 따른 對應策

첫째, 우리나라에 進出하는 先進諸國의 企業이나 製品에 관한 폭넓은 정보 즉, 製品生産技術, 市場活動, 原料確保, 顧客서비스, 原價構成, 品質改善 등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한 뒤 新製品開發이나 既存製品의 品質向上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活用하여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國內市場競争에서 벗어나 世界經濟의 分析, 海外市場의 動態把握, 外國語 등에 대한 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人的資源에 대한 教育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輸入自由化가 全面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國內外市場을 둘러싸고 先進國有數企業들과의 競争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競争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加一層 經營合理化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經驗에 의한 直觀的 意思決定方式에서 탈피하여 生産・마케팅・財務・人事管理 등

企業經營全般에 걸쳐 科學的이고도 合理的인 經營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IV. 技術의 급격한 變化

技術革新(Innovation)은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가장 주된 원동력이며 한 국가의 技術水準은 그 국가의 國力을 代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國家生存의 次元에서 尖端技術開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 最尖端技術이라면 흔히들 電子産業, 遺傳子産業, 新素材(뉴세라믹스)産業 및 에너지産業을 일컫는다. 현단계로서는 規模面에서 볼 때 電子産業이 단연 우세하나 1990년을 넘어가면 나머지 분야도 끊임없는 技術開發로 市場規模가 엄청나게 커질 展望이다.

과거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IC(集積回路), LSI(高密度集積回路)를 거쳐 오늘날 超LSI의 發展過程이 보여주듯 尖端産業은 그 기능이 놀라운 速度로 向上되어온 반면 價格은 상대적으로 떨어짐으로써 市場規模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의 칩에 트랜지스터의 集積能力은 5년 만에 10배, 10년 만에 100배로 向上되었지만, 超LSI 한 개의 價

〈表-4〉 企業成長戰略의 우선적인 과제

기술 개발	인재 양성	품질 향상	시설근대화	마케팅 강화	기 타
36%	24%	14%	14%	4%	8%

가격은 10년전 그대로라고 하므로 사실상 가격은 1/100로 떨어진 셈이 된다.

이와 같이 급격한 技術變革의 時代에 있어서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높고 資源問題, 人口問題 등 수많은 難題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尖端技術을 開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死活이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한 듯 1984년 3월 每日經濟新聞이 全國 最高經營者 100名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련의 設問調査에 의할 것 같으면 激變期下에서 企業成長戰略의 最優先的인 課題로 〈表-4〉

처럼 한결같이 技術開發(36%)과 人材養成(24%)을 들고 있었다.

한편 科學技術處의 잠정적인 人力需給統計에

따르면 오는 91년까지 博士級 高級頭腦가 1萬名, 碩士級 專門人力이 4萬名 등 總 5萬名의 高級頭腦 核心人力이 供給되어야 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韓國科學技術院의 大德研究團地로의 移轉을 계기로 碩·博士過程의 定員을 擴大하는 한편 理工系大學院의 定員調整, 科學技術大學의 開設運營(1985) 등 多角的인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지만 民間企業의 自律的인 노력이 없이는 技術開發과 이를 뒷받침하는 高級人力의 養成이 불가능할 것이다.

技術變化에 따른 對應策

첫째, 企業이 技術開發(R & D)投資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GNP에 대한

〈表-5〉 그룹별 연구개발 투자계획

(단위: 억원)

그룹	연도	84	85	증가율(%)	역점사업
現代		(5,000)	(5,000)	0	전자, 반도체, 자동차
三星		2,500 (6,500)	3,100 (7,200)	24 (10.8)	전자, 반도체, 유전공학, 컴퓨터
럭키금성		1,200 (5,310)	2,850 (7,850)	137.5 (47.8)	전자,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소재
大字		597	1,107	85.4	전자, 통신, 자동차, 조선
鮮京		-	(5,000)	-	소재, 정밀화학, 에너지
雙龍		100	170	70	파인세라믹스, 컴퓨터, 엔진
國際		200	210	5	철강, 신발
韓國火藥		(1,320)	(1,440)	9	정밀화학, 유전공학
曉星		300	400	33.3	소재, 컴퓨터
코오롱		50	75	50	소재, 의료기기

자료: 每日經濟新聞 1985. 1. 4

※ ( )안은 시설포함투자액

技術開發投資의 比率은 미국 2.36%, 일본 2.11%, 서독 2.67%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0.69%에 불과하다. 그나마 GNP規模自體의 차이를 감안하면 技術開發投資에 쏟아넣는 金額差는 실로 엄청나다.

全體製造業體의 賣出額에 대한 研究開發費支出比率도 미국 3.1%, 일본 1.9%, 서독 3.2%에 비해 우리나라는 0.67%로 여견히 초라한 실정이다. 그러나 <表-5>에서 처럼 최근 들어 尖端技術에 대한 財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앞으로는 財閥級 大企業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들도 자체적으로 技術開發投資 / GNP의 比率을 2%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주)</sup>

둘째, 정부와는 별도로 기업은 不足한 高級人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海外에 있는 僑胞科學者의 대대적인 유치와 함께 既存人力의 再敎育과 專門人力의 海外 新技術 習得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技術을 주축으로 對外競爭力과 未來對應力을 강화시켜 나감에 있어서 과학기술두뇌들이 보다 우대되고, 그들의 의사가 정책 결정과정이나 企業經營過程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制度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네째, 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그만큼 製品의 壽命週期(Product Life Cycle)를 단축시켰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자기의 企業에 적합하고 特化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서 장기간에 걸쳐 集中投資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 V. 新保護貿易主義의 擴大

保護貿易主義란 比較優位가 낮은 商品의 輸

入을 制限 내지 禁止함으로써 그 商品을 生産하는 國內企業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自由貿易主義에 對應하는 概念이다. 이 保護貿易主義는 이미 1929년의 大恐慌 때 크게 나타났었고 그 뒤 50年代와 60年代에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들 保護貿易主義를 舊保護貿易主義라 하는 반면 1976년 이후 지금까지 점차 그 度를 더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保護貿易主義는 新保護貿易主義(Neo Protectionism)라 부르고 있다.

新保護貿易主義의 特徵은 첫째, GATT(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의 기본이념인 無差別主義原則에서 벗어나 國別, 商品別 差別化 또는 選別化가 행해지고 있으며 둘째, 지난날의 保護貿易主義가 주로 關稅장벽(Tariff Barriers)에 의존한 반면 오늘날의 그것은 주로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s)을 사용하고 있고 셋째, 差別化·選別化의 대상 자체가 先進國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開途國에까지 확산되었으며 넷째, 과거와는 달리 先進國에 의해 主導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年代 이래 世界經濟가 長期的인 停滯에 빠지자 그 주된 배경을 國際貿易의 鈍化로 보아 GATT 年次總會를 비롯한 많은 國際會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膨大해지고 있는 新保護貿易主義의 傾向을 신랄히 비난하면서 反保護貿易主義·親自由貿易主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對外貿易을 다루는 各國의 個別的인 입장은 거꾸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갈수록 더 강하게 띠우고 있다. 각국의 輸入規制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表-6>처럼 價格別規制, 數量的規制, 品質的規制, 行政的規制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輸入規制는 과거에 섬유를 비롯한 一部 品目에 대해 쿼터형태의 규제에 국

(주) 수정된 5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는 1986년까지 R & D 投資 / GNP 비율을 2%로 伸張하는데 따른 民間部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表-6〉 輸入規制의 類型

價格的 規制	關稅引下, 反덤핑법, 相計關稅, 基準時價制, 輸出補助金, 輸入擔保金, 差別的內國稅, 最低輸入價格制
數量的 規制	쿼터, 關稅割當, 紳士協定(自律規制協定), 國產品 優先購買制度, 外換統制, 輸入許可制.
品質的 規制	工業標準價格, 保健衛生基準, 安全基準, 消費者保護要件, 環境規定.
行政的 規制	EC(유럽 공동체)域內 自由流通制限, 프랑스의 輸入書類 佛語使用 義務化.

한되었으나 앞으로는 全品目에 확대될 전망이고, 또한 종래에는 일시적인 時限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추세에 있어 우리의 輸出展望이 더욱 不透明한 실정이다. 따라서 輸出第一主義를 계속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으로서도 적절한 對處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新保護貿易主義에 따른 對應策**

첫째, 미국·일본 위주의 輸出(1983년의 경우 總輸出額의 47.6%)에서 탈피하여 輸出市場을 多邊化해야 한다. 사실 지난 10餘年에 걸쳐 輸出規模의 엄청난 증가와 더불어 輸出市場도 세계각국으로 擴大되어 왔다. 즉 1970년에 103개국에 불과했던 輸出市場이 1975년에는 129개국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79개국(속령 포함)으로 확대되어 세계 전체 165개국(속령 포함되지 않은 통계)중 아프리카의 3개 국가, 쿠바, 및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와 交易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輸出偏重度 역시 점차 개선되어 美國과 日本에 대한 偏重度는 1970年 75.6%에서 82년엔 43.9%까지 낮아짐으로써 이를 實證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對美·對日輸出 依存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 輸出市場을 多邊化해야 한다.

둘째, 輸出商品構造의 多樣化와 高度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섬유류, 선박, 전자제품, 철강, 신발 등 10대 輸出品目이 總輸出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게다가 附加價値가 낮은 勞動集約的이거나 單純技術集約的 商品을 集中的으로 수출하는 현재의 貿易構造로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81년의 경우 輸出量은 15.7% 증가한 반면 輸出價格은 3.6% 증가에 그쳤고 82년엔 7.9% 物量增加에 價格은 4.5% 하락했던 사실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國際競爭力이 있는 商品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세째, 非規制品目的 開發과 더불어 品質의 改善, 獨創的인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製品의 高級化·良質化가 並行되어야 한다.

네째, 先進國과의 合作投資, 技術協力, 第三國 共同進出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한편 後發開發國에 직접 海外進出함으로써 現地輸出의 方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國內外에서 展示되는 각종 展示會·博覽會에 出品하여 商品의 弘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도 이제는 덤핑수출을 止揚하고 제값을 받기 위한 業界의 자율적인 活動에 倍前의 勞力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VI. 國際金融市場의 不安

제 2 차 石油波動以後 先進工業國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緊縮通貨政策을 실시하면서 급상승한 주요국제금리가 지난 81, 82년에 비하면 비교적 낮아지긴 했지만 物價上昇率을 감안해 보면 實質金利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國際高金利로 말미암아 開途國은 外債問題가 더욱 심각해져 지난 82년 여름 멕시코의 債務不履行 사태를 계기로 表面化되었던 開途國의 累積債務問題는 83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으로 계속 확대되어 83년까지 債務再調整을 한 국가는 27개국에 금액은 6백 7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非產油開途國의 對外債務額도 점차 늘어 <表-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3년엔 6천 7백억달러까지 기록했다.

<表-7> 非產油開途國의 對外債務推移

(단위: 억달러)

년도별	1973	1980	1981	1982	1983
對外債務	1,142	4,648	5,471	5,790	6,700

주: 中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처럼 開途國의 外債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의 不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입은 1983년에 260억불을 상회하였는데 그 중 資本財가 30%, 原材料가 59% (原油 21%)에 이르고 있어서 수입 수요절감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1970년에 22억달러에 불과했던 外債는 1983년에 이미 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外債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그 동안의 經濟發展으로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外債依存的 成長에서 貯蓄에 의한 自立經濟體制로의 전환

<表-8> 韓國의 對外債務 현황

(단위: 100만달러)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1	1982	1983
I. 長期	892	1,702	2,833	4,545	7,080	10,533	16,137	20,127	22,611	24,969
가. 借款	807	1,594	2,670	3,995	6,145	9,399	12,827	14,349	15,689	16,157
公 共	301	588	1,320	2,028	3,114	4,320	6,531	7,899	9,374	10,403
商 業	506	1,006	1,350	1,967	3,031	5,079	6,296	6,450	6,315	6,114
나. 銀行借款	40	75	155	399	483	620	3,309	4,174	5,322	6,517
다. 外貨借款	-	-	-	19	93	251	288	358	341	581
라. IMF資金	45	33	8	132	359	263	713	1,246	1,259	1,354
II. 中期	218	170	116	153	408	483	617	602	488	1,064 <sup>(1)</sup>
貿易信用	218	170	114	150	386	480	576	564	462	405
現金借款	-	-	2	3	22	3	41	38	26	21
III. 短期	89	357	600	1,136	2,681	2,593	7,575	8,436	10,288	10,567
民間	72	193	397	413	1,499	1,041	4,158	4,110	4,001	4,947
金融機關	17	164	203	723	1,182	1,552	3,417	4,376	6,287	5,620
IV. 外銀甲計定	-	16	40	103	364	1,262	3,036	3,275	3,908	3,494
V. 總 計	1,199	2,245	3,589	5,937	10,533	14,871	27,365	32,490	37,295	40,094

註 1) 貿易信用, 現金借款外에 變動金利附 定期預金證書 (FRCD) 등 其他포함.



없이 더 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企業으로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國際金融市場의 不安에 따른 대응책

첫째, 값비싼 外資를 주로 生産性向上이나 技術開發에 投資함으로써 外債償還能力을 높여야 한다.

둘째, 不要不急한 外資導入을 止揚하고 不得已 外資를 調達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適正償還計劃에 따라 다양한 조달을 통하여 유리한 外資를 導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企業活動에 필요한 資金을 國內貯蓄을 통해 充當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지난 80년부터 82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年平均 國民貯蓄率은 22.0%에 불과했으나 같은 기간 總投資率은 29.1%에 달했다. 따라서 外債의 累增없이 成長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貯蓄의 획기적인 增大가 필요하다.

貯蓄을 늘리기 위해서는 物價安定에 앞장서고 勤儉·節約風土를 造成하며,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만연되고 있는 投機要素들을 하루 빨리 척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사치성 향락산업의 배격 등 사회적 풍토를 바로잡는데 있어서 經營者들이 先導의 役割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Ⅶ.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倫理의 提高

資本主義 國家에서 企業이 正當한 企業活動을 통하여 利潤을 추구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企業들은 좋은 製品을 보다 값싸게 消費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技術開發, 生産性向上, 品質改善, 原價節減 등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 그 중에서도 특히 大企業-이 市場操作을 통한 不當利益의 취득, 最低生活에도 못미치는

低賃金, 논·밭·垆地 가리지 않는 不動產投機, 特惠貸出을 이용한 문어발식 企業擴張, 下都給의 고질적인 횡포, 金融機關의 支配, 消費者를 우롱하는 商品의 誇大·虛僞廣告 등 불건전한 利潤追求에 급급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傳統社會의 土農工商 사상이나 日帝時代의 국민 착취적인 기업풍토 및 해방 이후의 불건전했던 經營者像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企業에 대한 不信은 날이 갈수록 깊어 가고 있다. 이처럼 企業經營者에게 지워져 있는 좋지 못한 인상을 拂拭시키고 나아가 漸增하는 企業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產業社會를 움직여가는 기관사와 같은 존재인 企業經營者는 社會的 責任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企業倫理의 함양에 각별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 Ⅷ. 맺음말

지금까지 오늘날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諸變化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國內外的 환경요인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企業環境變化는 단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個別經濟의 主体인 企業의 正確한 狀況判斷과 적절한 대응책이 並行되지 않고서는 에릭 트리스트(E. Trist)가 소용돌이 환경(Turbulent Environment)으로 묘사했던 오늘날과 같은 후기 산업 사회의 환경에 있어서 企業을 維持·發展시킬 수가 없다. 이 변화를 豫測하여 最適의 對應戰略을 마련하는데 중추적 役割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經營者이므로 經營者는 자신에게 주어진 使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奮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